여행·성형외과 문의 줄이어…도심 상인은 “손님 줄겠네” 걱정

광복절 앞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시민들 반응

휴양림 숙박·예약 전화 폭주
공기관·법원 일정 조정 분주

출근 직장인 아이맡길 곳 고심
전통시장·동네상가는 한숨만

정부가 광복절을 앞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학부모·기업·관공서 등 반응이 제 각각이다.

전례가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주요 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의 ‘공휴일 기념 선물’ 이 제공되면서 여행·레저 업계는 발빠른 특수 누리기에 나서는 반면, 공휴일과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탓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갑자기 생긴 공휴일을 반기면서도 애초 예정됐던 민원인 상대 업무 등을 평일로 미루거나 조정하느라 부산한 하루를 보냈다.

◇“휴양림 무료 예약 가능한가요” 문의 빗발＝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관리하는 전국의 휴양림 41곳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방침을 밝히고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전례없는’ 조치까지 이뤄져 당장,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주요 휴양림에 대한 숙박·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전남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성 방장산휴양림(객실 20개)·순천 낙안민속휴양림(객실 15개, 야영시설 17개)·장흥 천관산(객실 11개, 야영시설 20개) 등 3곳은 오는 14～16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14～15일 숙박 예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외 갑작스런 공휴일이 생기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예약하는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A성형외과 상담실장은 “임시공휴일이 확정된 4일 오전부터 피부 관리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의 예약 문의가 하루 동안 10통 가량 걸려왔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쉬니까 좋긴 한데…＝공무원들은 갑자기 생긴 공휴일을 반기면서도 민원인 접촉 부서의 경우 애초 예정됐던 민원인 상담 등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등 부산한 하루를 보냈다.

법원 등은 14일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바뀐 일정을 재판 당사자 및 증인 등에게 통보하는 등 절차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5개 자치구도 갑작스런 공휴일 지정에 따른 당직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고등학교 등의 경우 정해진 수업 일수(192일)를 맞추기 위해 교무회의를 열고 겨울방학 개학일을 앞당기거나 방과 후 수업시간을 하루 1시간씩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 맡길 데 없는데…”, “우리 직장은 안 쉬는데”＝임시공휴일과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어린이집이 쉬면서 아이를 돌봐줄 데를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

5살짜리 자녀를 둔 김모(여·29·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씨는 “14일 어린이집이 쉰다고 하지만 직장이 휴가를 낼 상황이 못돼 난감하다”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쉬지만 기업체의 경우 자율적 동참을 밝히면서 영세 소규모 직장인들의 경우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며 박탈감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뜩이나 손님 없는데…＝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도심을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동네 식당·마트 주인들은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 한숨을 내쉬고 있다.

광주대인시장에서 홍어를 파는 부영상회 백정자(여·54)씨는 “시장은 공휴일에도 장사를 쉬지 않지만 황금 연휴에 누가 시장을 찾겠냐”고 반문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아기에겐 모유가 최고랍니다” ‘24회 세계 모유수유주간’(8월1일～7일)인 4일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운암동 문화여성병원에서 임산부들과 예비엄마들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박 판판이 지는 이유 봤더니

광주서 목카드·특수렌즈 등 준비 ‘사기 포커’
도로공사 전·현직원 등 억대 도박 9명 입건

나름 포커에 자신있다는 A씨는 손기술이 좋아 이른바 ‘아마추어 타짜’라 불렸지만 공기업 직원들과 포커를 하는 날에는 ‘완패’(完敗)했다. 평범한 공기업 과장인 B(51)씨와 몇 차례 어울리면서 잃은 돈만 2000만원이 넘었다. 전·현 도로공사 직원 등이 함께 게임을 했지만 유독 B씨가 이기는 횟수가 많았다. “어, 계속 질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지난 1월 22일 자정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C모텔에서 열린 도박판도 비슷했다.

다 이길 것 같았지만 B과장에게 연거푸 졌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미리 준비해뒀던 LED 라이트를 꺼내들고 화장실로 가 어둠 속에서 카드에 갖다댔다. 트럼프 카드 뒷면에 묻어있는 형광물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명 ‘목카드’였다.

A씨는 화장실을 뛰쳐 나와 카드판을 뒤엎으며 B 과장이 카드 뒷면에 그려진 형광물질 내용이 보여 상대방의 패를 읽을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B 과장은 ‘사기도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A씨 등에게 잃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현장을 마무리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B 과장 등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이들의 지인 6명 등 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광주의 모텔에서 3억3만원의 판돈을 걸고 52차례 속칭 ‘세븐 포커’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도박판에서 수천만원을 잃게되자 특수렌즈와 목카드를 구입,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여 7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속지 마세요…노인 대상 사기범죄 판친다

순천서 아들 행세…함평선 장애인 등록 미끼 돈 뜯어
경찰, 3대 악성 사기 사건 규정 지속적 단속 펴기로

시골 마을에 홀로 거주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유독 높은데다, 올 들어서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수백 건 발생하면서 경찰도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발생한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은 광주 332건, 전남 362건 등 694건에 달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359건)에 비해 사건이 다소 늘어났다.

경찰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끊이질 않는데 따라 ‘전화금융사기’, ‘중소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함께 ‘노인 대상 사기 범죄’를 ‘3대 악성 사기 사건’으로 규정, 지속적인 단속에 나섰다.

순천경찰은 4일 아들 행세를 하며 전화를 걸어 노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간음목적 유인)등으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께 A(여·71)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며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보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병이 낫는다”고 속인 뒤 A씨로부터 15만원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29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보성경찰도 비슷한 피해 내용이 접수돼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새벽이나 늦은 밤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한 뒤 울먹이거나 쫓기는 목소리로 말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함평경찰도 노인들에게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주겠다고 접근,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노인 7명에게 우선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만～25만원씩 총 107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께 노인 상대 사기로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출소 후 다시 판단력이 흐린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나 복지단체는 복지·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절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마을회관이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도 솔깃한 제안을 해오면 의심해보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흥 오천저수지 아래 수로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4일 오후 2시50분께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오천저수지 둑 아래 수로에서 선모(23·고흥군 도양읍)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선씨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30여 분만인 오후 4시 20분께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선씨가 친구 4명과 함께 출입이 금지(상수도 관리구역)된 저수지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3m 깊이의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스마트폰 싸게 판다” 글 올려
7200만원 가로챈 2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최신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26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A(28)씨에게 6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191명으로부터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창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친구 폭로에 음주운전도 들통

○…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이 친구의 폭로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통.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조모(47)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M식당 앞길에서 동창인 김모(48)씨가 “모임에서 여자 동창을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김씨의 귀를 다치게 한 혐의.

○…조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김씨와의 약속 장소를 찾았는데, 피해자 김씨는 “조씨가 음주운전도 했다”고 경찰에 말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아파트]					
2015타경6522	1	광산구 신창동 855-5 중흥아파트 101동 14층 1402호 59.940㎡	아파트	132,000,000 132,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5타경6348	2	남구 주월동 401-10 195㎡[현황대지]	전	137,815,440 137,815,4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남구 서문대로 785-10 1층90.54㎡ 2층59.94㎡ 부속건물 1.62㎡[창고] 0.81㎡[변소, 현황멸실] 제시외 창고 등 25.3㎡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23506	1	동구 월남동 158-3 1048㎡[현황임야]	대	168,463,000 168,463,000	일괄매각
		동소 158-5 1369㎡[현황임야]	대		
2014타경28174	1	화순군동면운농리234 16796㎡[현황잡종지]	답	392,697,000 392,697,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52 2397㎡[현황잡종지]	전		
		동소 261 4425㎡[현황잡종지]	전		
		동소 283 2588㎡[현황잡종지]	답		
		동소 284 2063㎡[현황잡종지]	답		
2014타경30344	1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산111 893㎡[현황임야 부속전]	임야	11,150,800 11,150,800	일괄매각, 목록2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83 1240㎡[현황축전및임야]	답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15타경1985	1	동구 지산동 95-2 655㎡	대	209,600,000 209,600,000	제시외건물제외
2015타경4137	1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254 1425㎡	전	19,950,000 19,9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4427	1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161-16 1309㎡	답	28,274,400 28,274,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6348	1	남구 백운동 635-6 392.4㎡	대	345,312,000 345,312,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illegible]

② [illegible]

2. 매각기일 : 2015. 8. 20.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8. 27.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illegible]

② [illegible]

③ [illegible]

④ [illegible]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illegible]

② [illegible]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illegible]

② [illegible]

8. 주의사항

① [illegible]

② [illegible]

③ [illegible]

④ [illegible]

⑤ [illegible]

⑥ [illegible]

⑦ [illegible]

⑧ [illegible]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illegible]

※ [illegible]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